

## 亞細亞·太平洋時代の 高等教育 세미나

金 蘭 洙  
(延世大 教育學科)

지난 9월 17·18일 양일간 亞細亞·太平洋時代の 도래에 따르는 高等教育의 課題를 거론한 國際學術會議가 서울 힐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0편 남짓한 發表論文과 討論은 앞으로 편집·발간될 것이지만 발표 순서를 쫓아서 각자의 論旨를 浮刻시켜 보고 한 參觀者의 印象을 추수 뒤끝에 이삭 줍듯이 적어 본 글이다. .....〈筆者 註〉

### 1. 開 會

‘地球村’이라는 말이 대두된 지는 오래이지만 필자에게 實感나기는 160 개국이 참가한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 契機가 된다. 8월 17일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高等教育의 새로운 時代的 使命을 擧論한 國際學術會議가 힐튼호텔에서 國內外 人士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盛大하게 開幕되었다.

亞細亞·太平洋時代の 표방 구호에도 걸맞는 亞洲大學校가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 공동 기획하고 太平洋地域 高等教育研究會(Pacific Region Association of Higher Education : PRAHE)의 年次大會를 결들이는 학술 회의였다.

주최측을 대표한 金孝圭總長의 開會辭는 간결하였지만, 正鶴을 절러서 革命的 變化가 소용돌이 치는 現代社會에서 高等教育의 機能 定立이

올바로 되어야 할 까닭을 밝히고 國際的 相互依存이 불가피한 時代的 狀況 속에서 高等教育의 國際的 協力體制 구축이 緊要함을 역설하였다. 科學과 技術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 구실을 하는 것을 강조한 점은 舍蓋性이 많은 말이기도 하였다.

韓國大學教育協議會會長으로서 歡迎辭를 한 趙完圭總長은 亞細亞 高等教育의 異例的 膨脹過程에서 大學이 겪는 苦痛은 많지만 學問的 秀越性이라는 大學 본래의 使命 維持難,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大學機能의 變革을 요청하는 時代的 挑戰에 대한 對應弱, 增大하는 教育需要에 대한 財政難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共同으로 대처해 나갈 戰略 樹立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論旨이었다.

金永植長官의 祝辭에서 “세계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泰平양 時代가 개막되는 시점에서 금

번의 학술 대회가 이 지역 대학간의 국제 협력을 더욱 진밀하게 해줌은 물론 이웃 사촌이라는 속담처럼 이웃 나라끼리 우의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善隣精神의 具現을 大學人들이 先導할 것을 요청하는 깊은 뜻을 담은 것이었다.

끝으로 캐나다의 英系 콜롬비아大 David Whittaker 교수는 PRAHE 會長의 인사말로써 사회 변화 과정에서 前衛的 行動 症候가 짙은 大學生들의 성격 특성을 深層 分析을 主調로 한 발표를 한 절에서 學會 모임의 특징을 살려나갔다. '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大學生들의 自由言論運動이 政治的 抗拒, 理想主義的 口號, 反戰抗議 속에 大學本部를 占據하고 그 끝에 773명이 대량 검거된 것은 美國 歷史上 未曾有의 大事件이었다. 이러한 것들을 例示하면서 前衛的 大學生 集團의 성격 구명을 해 나간 그의 발표는 그의 말대로 지난 25년간 高等教育 문제 研究를 心理學的으로 接近해 온 그의 學者的 面貌의 一端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 2. 基調講演

大會 主題에 관련시켜서 두 사람의 基調講演이 있었다. 西江大의 金德中 學長은 '새로운 國際環境變化에 비추어 본 21세기의 平和의 共存을 위한 高等教育의 役割'論을 펼쳤고 미국 매릴랜드大學校 Donald Warren 교수의 '21세기를 향한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國際的 協同'論이 두번째로 이어졌다.

첫 발표자가 巨視經濟學的 觀點에서 高等教育 體制 外的 狀況의 변화와 高等教育의 課題를 그 나름의 달변으로 논술해 나간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후자는 高等教育 體制 內的 要因들을 심도 있게 高等教育 專攻學者답게 차분히 다루어 나가서 우선 발표 스타일 자체에 있어서 對比되는 점이 많았다.

金德中 교수는 歐美 산업 선진국들이 연 3%선의 低成長率인데 비해서 연 10%의 高度 經濟 成長率을 지속하는 亞細亞의 新生工業國들을 외국인들이 팔목 주시해서 昇龍群에 비유하는 점

이 결코 우리가 아님을 例證하는 데서 말문을 열었다.

한국은 地政學的 位置上의 불리점을 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傳來의 俗談처럼 우리를 에워 싸고 있는 列強國들의 霸權爭奪戰의 희생국이 되어 왔기 때문에 宿命論的 諦念에 사로잡혀 온 과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子女教育을 위한 學父母의 자기 희생적 教育熱이 基盤이 되어서 初·中等教育이 지난 40여년간 先進國 못지않게 보급이 되었다. 그 결과 誠實·勤勉·有能한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勞動 集約的 產業을 主軸으로 한 經濟發展策이 奏效해서 세계적으로 10대 교역권 안에 들어선 현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自立經濟의 基盤이 조성된 韓國을 비롯한 昇龍과 같은 아시아의 新生速成產業國들은 列強의 隸屬의 位置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없이 어느 의미에서는 새로운 國際經濟 질서 수립을 위한 突破口 구실도 할 수 있는 자리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國際的 狀況變動觀이었다.

그리고 知識產業이 主宗을 이루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高等教育은 自國의 國際的 競爭力의 伸張役을 맡는데 주력만 할 것이 아니라 人類가 지향하여야 할 平和의 共存의 觸媒役을 담당할 수 있도록 革新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 그가 본 高等教育의 課題이었다.

Donald Warren 교수는 21세기의 밝은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는 高等教育 차원에서 國際的 協同이 當爲의 課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익 증대에 大學이 求心役을 해왔지만 知識 深究는 國境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점에서 가장 국제적 측면이 두드러진 機構로서 國際的 協同이 손쉽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그의 大學管理體制比較論에서 주목을 끈 대목은 미국에 있어서는 集權化 趨勢가 현저해져 간다는 점이었다. '45년 전까지는 分權化 體制 속에서 각 대학의 自律的 運營이 主特徵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점차적으로 州單位로 統合的 管理體制로 集權化의 과정을 밟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高等教育에 대한 投資가 늘고

또 그 效率性을 極大化시키고 각 州의 중점 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게 됨에 따라서 州의 行政이 居中調整線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되어 간다는 것이다.

또하나 새로운 경향은 大學의 教育課程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教育上 傳統主義者와 政治的 保守派들은 서구 문명에 초점을 맞춘 中核課程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經濟的 理由로 해서 외국어를 활용한 地域研究와 東方文化研究에 대한 것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教養課程에서의 文化的 相對主義에 대한 反撥 경향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 보편 타당한 眞理의 탐구와 窮極의 價値를 천명하고자 하는 大學의 진정한 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學者의 國적 의식을 초월한 공동 연구, 학술 정보의 교환, 국제적 회의, 교수와 학생의 교류는 더욱 더 增大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學者로서, 學界指導者로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教育修交使(educational diplomat) 役을 맡아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매듭말이었다.

### 3. 全體 모임

오찬에 이어서 이번 회의의 主題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두 차례의 전체 모임이 이어져 나갔다.

첫 제목의 강연과 논평은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國際的 協同이었고, 두번째로는 大學과 產業體와 研究專擔機關간의 協同 方案에 대한 論議이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李元萬 總장은 '太平洋時代의 教育的 交流' 論을 史學者로서의 造詣를 바탕으로 太平洋時代 到來의 歷史的 背景 풀이에서부터 시작하였다. 美·蘇가 超強大國으로서 아직도 國際政治 무대에서 翬臨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經濟的 交易에 있어서는 亞細亞·太平洋 국가군들이 歐美圈 국가들에 비견할 만한 비중으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아

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변두리 구실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同伴者로 다루어져야 하고, 더 이상 東西가 無關한 것이 아니라 豊富한 文化的·知的 遺産을 相互 活用해서 하나의 世界文化를 創出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요 주장이었다. 전 세계 산출력에 있어서 55% 선을 곧 차지할 亞·太地域은 자체 共榮圈 형성에 접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새 時代를 위한 教育의 새로운 役割 遂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난 날 教育 交流가 歐美圈에로의 一方行이었던 점을 지양하여 쌍방적 교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여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늘고 있음을 밝혔다. 교류의 형태에 있어서도 學生과 教授의 교환 못지않게 教育資料 교환, 研究 및 出版 그리고 學術會舍 등에서도 協同的 努力의 폭을 넓히고 互補함을 기할 수 있도록 힘 써야 할 필요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例示하였다.

두번째 演士로 나선 日本 國立 多媒體教育研究所長인 Hedetoshi Kato 박사는 '電子媒體를 통한 國際的 協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南太平洋大學校(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를 본보기로 하였다. Fiji 섬에 본부를 둔 同大學校는 광활한 남태평양에 산재한 수 많은 섬 나라의 大學生들에게 電子媒體를 통해서 遠隔 教育을 실시함으로써 매우 수준 높은 高等教育의 혜택을 주고 있다. 群小島嶼國家로서는 大學 教育의 人的·學術的 資源을 獨自의으로 갖출 길이 없는 것이지만 다양한 電子媒體를 활용해서 著名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大學教育의 機會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점은 國際的 協同의 眞價를 발휘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遠隔 高等教育의 방식은 섬 나라뿐 아니라 內陸奧地에도 확산 적용되고 있는데 開放大學亞細亞協會(Asian Association of Open Universities) 傘下에는 '87년 시점에서 250만 명이 각종 매체를 통한 學習의 惠澤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보고이었다. 그는 한국의 放送·通信大學이 이 점에서 先驅의 役割 遂行을 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19세기의 亞細亞 諸國은 經濟的 後進性, 文化的 落後性으로 말미암아 沈滯의 늪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고도의 발전을 본 각종 電子媒體를 쓸

기롭게 활용해서 高等教育을 보급하는 地域內 國家들의 國際的 協同을 增進시켜 나가면 21세기에는 매우 밝은 발전 전망을 세울 수 있겠다는 것이 그의 희망이요 기대에 찬 주장이었다.

두 분 발표자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金際東 교수도 大學 교육에서의 國際的 協同의 所望性과 實現可能性에 대해서 肯定的 論評을 하면서도 異國文物의 수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社會學的으로 分析한 말들을 곁들였다.

전체 모임 두번째 제목은 大學과 企業體 그리고 독립된 研究機關의 協同 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이른바 產·學·研의 協同이 매우 바람직스럽고 또 강한 社會的 要請으로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排他的 閉鎖主義 性向 때문에 부진하고, 때로는 對立的 樣相이 露呈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첫 발표에 나선 鄭根謨 박사는 大學 自存의 基本的인 爭點에 대한 論評에서부터 그의 발표를 시작하였다.

大學은 本然의 使命인 學問의 秀越性 추구를 위해서 自律的 運營을 신장시키고 연구 활동이 大學課程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創造的인 基礎研究의 바탕 위에서 技術革新이 개발되고 산업 발전의 國際的 競爭力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產·學·研의 協同은 必須的 課業이라는 것이 그의 前提였다.

이를 위해서 大學도 公式的인 學位課程에만 집착하지 말고 산업 종사자들의 再教育 및 刷新教育 프로그램을 개방해서 擴張奉仕機能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동시에 산업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大學에 대한 財政的 支援을 확충해 나가는 상부상조의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학과간의 壁도 낮추고 多學問的 接近으로 전공교육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동시에 學際間 研究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중점 순위도 재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制度的 革新에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야만 產·學·研의 協同은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세 기관 協同의 連繫를 강화하는 길은 상호간에 誘因體制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高級頭腦 전문가들은 類類相從하는 性向이 있는 것이므로 大學·企業·研究

所의 전문가들이 상호 檢束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協同의 捷徑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浦項製鐵工場과 附設 科學技術研究所 그리고 신설된 浦項工科大学의 統整된 協同 사례를 소개한 金英傑 同大學院長의 내용도 示唆點이 많은 것이었다. 우리 산업의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 개발 인력 중 博士學位 所持者를 기준으로 할 때 大學이 83%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研究開發 投資는 5.5%에 불과하고 產業體는 3% 人力에 68.5%의 投資이고 國立研究所는 14% 人力에 26%의 研究開發費를 차지한다는 比較資料를 提示하였다. 大學은 연구 不毛地帶로 방치되고 企業은 研究人力 確保難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協同 부진이라는 것은 國家的 損失이라는 그의 批判에는 共感이 갔다. 이 점에서 製鐵工場 構內에 새로 출범한 工大와 附設研究所가 人的·物的 資源을 상호 활용해서 教育·研究·諮問奉仕의 여러 기능의 발휘를 有機的으로 統合시키고 있는 점은 實驗的 次元에서나마 놀이 평가해야 할 일이다. 세 機關 종사자들간에 보수, 근무 조건, 승진 체제 등에 있어서 潛在的 葛藤이 있고 경영층의 성급한 成果 期待에서 오는 不安이 없지 않다지만 國益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產·學·研의 連繫·協同이 所望되고 全國的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발표자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 4. 分科別 모임

다음 날 오전의 모임은 네 개의 分科로 이루어졌는데 각 분과에 招請發表者가 각 2명씩 그리고 發表 要請에 呼應한 사람이 4~6명씩으로 거의 30편의 論文들이 발표되고 격의 없는 질의와 토론이 전개되어서 다양한 내용에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 격조 높은 학술 회합이 펼쳐져 나갔다.

제 1분과에서는 '國際的 協同事例'라는 副題下에 朴興洙 교수가 '韓國 상황에 비추어 본 脫產業社會에서의 教育의 새로운 役割'論이 첫 발표이었다. 그는 國際的 相互依存 시대에서는 教育 交流를 활발하게 하여야만 오늘의 젊은이들이 다가오는 情報社會에 隸屬되지 않고 국제 환경

개선의 主役者役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enis Blight 교수는 濠洲大學들에 있어서는 亞細亞·太平洋時代의 도래를 맞이해서 白濠主義를 탈피하고 있는 國際的 協同事例를 발표하였다.

David Chantril 교수는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開發國과 開發途上國間의 技術者教育 協同事例, 泰國의 Dusit Jesdapipat 교수는 經濟學的分析을 통해 본 泰國 高等教育의 문제와 발표 전략을 발표하였다. George M. Oshiro 박사는 미국의 Obirin 大學 東京分校에서의 國際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印度의 C.B. Padmanabhan 교수는 印度의 事例, 朴俊熙 교수는 韓國 事例, Chawalit Putthawongs가 泰國內 北部地域 大學間의 協同講座制 등의 발표를 차례로 이어 나갔다.

제 2분과의 副題인 ‘國際協同의 展望과 課題’를 가지고 劉仁鍾 교수는 大學間 協同의 國際化 展望과 克服하여야 할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분과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大學人의 인식 부족, 폐쇄적 풍토, 언어의 장벽, 그리고 행정가의 역량 등을 극복할 대책을 세워야만 情報革命이 소용돌이치는 새로운 時代에 걸맞는 大學間 協同의 國際化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다음 발표를 한 Akira Tachikawa 교수는 PRAHE의 작년 東京會合主管校였던 國際基督敎大學에서의 經驗 事例를 주로 하여 분과 부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차 대전 후에 基督敎的 建學精神을 가지고 창설된 同大學은 日本語와 英語를 수업 용어로 한 점에서 특이하다. 그는 졸업 요건 속에 國際化된 과목의 이수를 필수화할 일, 거대 도시의 大學 入學 定員을 동결하고 지방대에 증원하는 동시에 외국 대학 分校 誘致를 권장해서 지방대학 進學 助長策을 쓸 일, 외국인 교수의 雇傭 促成 등이 日本大學에서 國際的 協同의 길을 넓히는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泰國의 Noi Chamdumpai 교수는 外國大學과의 자매 관계 맺는 일, 하와이대의 Brent Poppenhagen 교수는 多文化 背景 속에서의 敎授·學習 연구 방안에 대한 設問調査 협조 의뢰를 하는 異色の 발표도 있었다. 駐韓英國文化院長인 David Rogers 씨는 學者와 學生의 교류 매체

로서의 文化院의 役割을 부각시켰고 Sho Takakura 교수는 日本 筑波大學에서의 敎育交流上의 問題를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였다.

제 3분과의 副題인 ‘高等教育에 있어서 諸部門間 協同’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서독 함부르크대의 Ernst Günster Schilling 교수가 그동안의 滯韓 經驗에 비추어 產學協同에 대한 文化比較論의 발표가 있었다. 儒敎的 傳統이 尙存하는 韓國의 大學敎育에 있어서는 순수 理論學習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實用性을 위주로 하는 工學分野에서의 產學協同이 올바로 정착되지 못한다는 文化歸屬論도 수긍이 가는 점이 있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最適 打開策을 모색하려면 融通自在로운 思考의 變通性이 있어야 하는데 黑白論理의 一義的 思考의 惰性에 젖은 韓國 學生들은 그것을 變德性으로 잘못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는 그의 推論은 재음미해 볼 만한 점인 것도 같았다.

李茂根 박사의 學科長 意見 조사 결과 引用에서 보면 4年制 大學에서 92.5%의 應答者가 敎育課程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산업체 인사의 자문을 구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產學協同의 길이 막히는 까닭으로 앞서 발표한 Schilling 교수의 原因分析과 一脈相通하는 점이 있었다. 陸榮一 교수의 발표로 보면 產·學間 不協調의 源泉의 原因이 쌍방 人士들간의 경직된 精神 자세 또는 價値觀의 相異에서 비롯된다. 기업측에서는 외부인의 異端視 때문에 意思疎通路가 막히고, 大學측에서는 現實 超然의 고자세에 결들여 이론 탐구에 몰두하여 연구 結果도 實用性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產學協同은 부진해갈 밖에 없다. 그러므로 產學協同 敎育을 效率化시키려면 歪曲된 觀點의 시정, 오도된 情報의 교정, 相互不信 등의 벽을 허물어 나가야 하겠는데 大學人이 意思疎通路 개척에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南明子 교수는 ‘文化的 開明을 위한 敎育課程改革’論을 했는데 대화 속에서 인간 관계의 핵심인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사려깊은 敎養人이 되어 나가는데 오늘의 大學敎育에서는 이 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大學敎育의 중심 기능을 學生들의 價値觀 革命으로 昇

華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產學體制의 현대 대학이 안고 있는 教育上의 病理現象을 날카롭게 解剖한 느낌을 주었다. 南교수가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產學協同 부진도 關與者間의 대화 부재 또는 부실에 기인한다는 앞선 발표자들과 脈을 같이 하는 관점이었다.

‘科學教育의 國際的 性格’을 거론한 Akira Miyake 교수의 발표는 국제적으로 높이 評價받는 과학 연구 논문들이 영어로 발표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고, 회의도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 常例이므로 영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主眼點으로 보였다.

태국의 Sompong Orapin 교수는 ‘泰·韓·日에서의 遠隔教育의 比較’를 다각도로 제시하였고 東京水産大學에 교환 교수로 있는 미국의 John Alex Mckenzie 박사는 民主市民으로서의 權利學習을 올바르게 시키려면 法에 대한 教育을 하여야 할 까닭과 實例를 解説한 것 등이 곁들여졌다.

제 4 분과의 副題는 ‘大學·企業·研究·機關의 研究·協力’이었는데 泰國의 Pimol Rientavata 교수와 그의 大學에서의 水資源研究 센터에서의 協同研究 사례를 발표하는데 이어서 孫承堯 교수는 亞洲大學校에서의 산업체 근로 靑年들에 대한 大學課程의 工學教育을 하는 產學協同 사례를 발표하였다. 고등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勤勞靑年들에게 희망을 鼓吹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획기적 시도로 높이 평가할 일이나, 孫교수 말대로 아무리 精選되고 透徹한 勉學 目的을 가진 집단이라 하더라도 4년 과정을 2년에 집중 이수시키는 일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미국 워싱턴大學校의 Nancy M. Borton 여사는 國際的 技術開發과 轉移를 위한 大學 運營 模倣을 발표하였고 泰國의 Srisakdi Charmonman과 Teprusong Vorayas 교수 등도 분과 부제에 적합한 그들 大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 5. 閉 會

연 이틀에 걸쳐 30여 명의 발표와 토론을 마무리 짓는 모임은 워싱턴大學校의 Don Williams

교수의 ‘要約과 結論’ 발표가 있는 다음 PRAHE 회원들의 年次總會 절차로 이어졌다.

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매우 훌륭하게 치루어낸 亞洲大의 吳浚錫, 金哲, 孫承堯, 李勝煥 교수와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具丙林·李和國박사의 起立을 요청하고 萬口稱讚의 박수 보내기를 할 때의 분위기는 PRAHE 創設者로서 그의 感懷가 매우 커 보였다. 10여년 전 워싱턴大 學生會館 한 모퉁이에서 呱呱의 소리를 울린 뒤로 해마다 會勢를 늘려왔지만, 서울 모임에 亞細亞·太平洋地域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亞·太廣域研究會로 本格化된 것을 그는 自祝하였고 韓國側 人士들에게 深謝하였다.

亞·太地域이 세계 무대의 周邊役에서 主役으로 차츰 부상되어 나감에 따라서 지역내 高等教育의 責任이 세 가지로 集約되는 발표와 논의가 있는 것으로 그는 풀이하였다.

첫째로 國際化 課題로서 教育課程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서구 문명 偏重傾向을 탈각해서 亞·太地域內 隣接國들의 人物·地理·文化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노력과 學生·教授·教育資料·研究·出版을 통한 教育적 교류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둘째로 產·學·研의 協同을 위한 連繫 強化 필요가 새로운 조명을 받은 일이다.

세째로 政府와 大學의 關係 再定立에 있어서는 간섭을 최소화한 공공 지원과 운영의 내실을 극대화하는 대학 자원의 책임 등이 논의된 것 등을 그는 부각시켰다. 大學의 國際化, 產·學·研 協同 그리고 政府와 大學 關係의 適實化 등이 논의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는 제언으로 그의 말은 매듭지어졌다.

全體 모임을 지켜보고 4개 分科의 수 많은 발표들은 走馬看山格으로 둘러본 셈이지만 필자 나름의 印象的 判斷으로는 이번 모임은 國際會議로서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한두 가지 큰 뜻을 지녔다고 보았다.

첫째로 高等教育機關의 창설과 운영에 있어서는 서구 못지않게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亞細亞 國家들이지만 지식의 창출과 교육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활용에 있어서는 周邊國 선에 머물

러 있던 나라들의 高等教育 전문가들이 폭 넓은 참여를 한 가운데 국가 발전의 原動力으로서 大學의 未來像을 格調 높게 논의하였다는 것 자체가 큰 意義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둘째로 改革의 旗幟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발표자들의 정신 자세는 改革志向的이었고 내용도 革龍的이었다. 국제적인 상호 의존과 협동이 중요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교류의 常爲性과 實現可能性을 한결같이 강조한 점도 亞·太地域內 대학간 協同體制 구축의 앞으로의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었다.

현대 대학에서의 學事改革은 改革主導者들의 잦은 교류를 통한 접촉 변화의 양상이 특징이다. 주최측이 배운 오찬과 만찬 자리에서의 交歡은 이들 觸媒者들의 友誼를 敦篤하게 하였고 앞으로의 協調의 기틀이 되기도 하였다. 화기에이한 가운데 밤 늦은 줄 모르게 각 나라의 民謠를 들려가며 和唱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선 和合의 學術 饗宴은 幕을 내리었기 때문이다. 숨어서 뒷바라지를 한 大宇財團의 이석희 理事長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張仁淑 總長이 後見役的 參與로 시종일관한 점도 인상 깊었다.\*